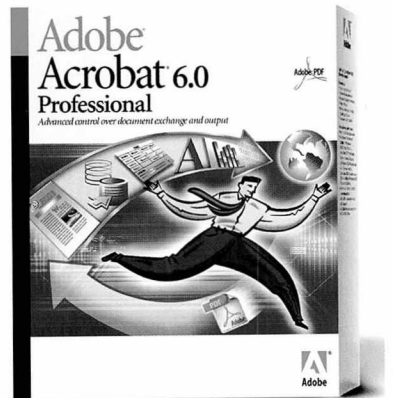


새로워진 애크로벳 다(多)되네

JDF Job Ticket 생성, 분판 출력 지원 등 인쇄 지원 돋보여

최근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 이흥렬, www.adobe.co.kr)가 시장 공략을 위한 새로운 상품으로 Acrobat 6.0 출시를 공식 발표했다. Acrobat 6.0은 한국어도비사로서는 그야말로 야심찬 기획상품이다. 'Acrobat Reader를 아는 사람들이 Acrobat를 모른다' 라는 이흥렬 사장의 꾸념을 잠재우기 위해 올 초 열린 기자간담회부터 누누이 강조해 오던 제품이다. 한국어도비사의 유저 가이드를 바탕으로 Acrobat 6.0의 새로운 기능 및 흥미로운 기능들을 정리해 보았다.



Acrobat 6.0은 Adobe Reader, Acrobat Elements, Acrobat Standard, Acrobat Professional로 구성되어 있다. Adobe Reader는 기존 Adobe Acrobat Reader의 새로운 제품 명칭으로 PDF문서를 읽거나 프린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배포되며 PDF e-Book을 다운로드 하거나 읽어 볼 수 있다.

Acrobat Elements는 PDF 문서 생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제공하며 Adobe 또는 외부 써드파트에서 제작한 플러그인은 연동되지 않는다. Acrobat Standard는 양식 생성 기능만을 제외한 PDF 변환, 편집 등의 기능들은 Acrobat 5 버전과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보면 된다. 외부 써드파트에서 제작한 플러그인 연동은 가능하나 Professional 버전과 비교하여 몇 가지 주요한 기능들이 생략되었다.

Acrobat Professional 버전은 PDF 전문가를 위한 버전으로 양식 작업,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 연동, 프리프레스 분야에서의 고해상도 출력을 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AutoCAD와 Microsoft Visio, Project 에서 레이어를 포함한 PDF 문서의 생성을 위한 PDFMaker 기능이 제공된다.

● **새로워진 기능들** “Acrobat Reader만 알고 Acrobat를 모르는 한국 시장을 변화시키겠다”는 연초 이흥렬 사장의 의지처럼 Acrobat 6.0은 확실히 새로워졌다.

우선은 매크로 기능이 지원되면서 PDF 생성작업이 간단해졌다. 매크로 기능은 기존에는 Microsoft Office 제품에서만

가능했다. 하지만 Acrobat 6.0에서는 Outlook, Internet Explorer, Microsoft Project, Visio 그리고 AutoCAD까지 PDF 문서를 만들기 위한 단축아이콘 하나를 누르는 것으로 PDF를 생성하기 위한 모든 작업이 끝난다. 아울러 PDF로 변환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PDF 변환 명령이 나타난다.

이러한 기능은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동봉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첨부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PDF 변환 명령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기능은 한글 문서를 PDF 문서로 변환할 때 특히 유용하게 작용한다. 한글 문서를 PDF로 변환하고자 할 경우 인쇄를 선택하고 프린터 드라이버에서 Adobe PDF를 선택, 인쇄 명령을 내리면 PDF 문서로 제작된다. 하지만 이 경우 추후에 종이로 된 출력물을 원하는 경우 다시금 프린터 드라이버를 수정, 선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이미 저장된 문서를 불러오기를 통해 선택한 다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PDF 문서를 제작하면 추후에 프린터 드라이버를 수정 선택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인터넷에서도 자유로워졌다. Acrobat 6.0에서는 Internet Explore에 PDFMaker 아이콘이 생성된다. 해당 인터넷 정보를 PDF로 변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단축 아이콘 한번 누르는 것으로 모든 작업이 끝난다.

Acrobat 5.0 버전 이하에서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았던 한글 웹사이트의 PDF 문서 변환도 한국어도비사로부터 약간의 지원만 받으면 인터넷과 Acrobat에 서투르다 할지라도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검색 및 Catalog 기능도 추가됐다. 기존 버전에서는 한글 문서의 인덱스 생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Catalog 기능을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Acrobat 6.0 버전에서는 한글 문서도 인덱스 생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문서 속에서도 찾고자 하는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서보기 기능에서도 용량이 많은 문서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다시 처음이나 끝으로 스크롤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Acrobat 6.0에서는 두개의 화면창이 동시에 지원되기 때문에 다소나마 불편이 줄어들었다. 또한 문서의 정교한 편집을 위한 눈금자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문서 확대도 최대 6400%까지 가능하다는 게 한국어도비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루페 도구가 추가되어 필요한 부분만 확대할 수 있다. 루페 기능을 이용할 때는 루페에 선택되지 않은 부분의 크기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능은 다양한 종류의 문서를 문서 포맷에 상관하지 않고, 한번에 PDF 문서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들은 개별적으로 저장되지만 하나로 묶어서 통합 저장할 수 있으며, 통합 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문서의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 온라인 교정 등 인쇄를 위한 도구들 Acrobat 6.0에서 가장 돋보이는 기능은 완벽해지진 않았지만 인쇄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지원이다. 한국어도비사에서 이른바 'PDF 전자 교정 및 주석'이라고 명명해 놓은 온라인 교정 기능은 인쇄인들에게 Acrobat 6.0 사용을 어필한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듯 싶다.

Acrobat 6.0이 지원하는 다양한 교정 도구를 이용하면 대용량 전송 시스템과 전화를 동원한 어수선한 교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유니다스에서 제공하는 교정 서버(www.dmn.co.kr) 내지는 이메일을 통해 PDF 문서 보완설정 수준에 따라 보다 편리한 교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온라인 교정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도구를 살펴보면 Note tool은 PDF 문서 위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크기와 투명도에 해당하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교정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288×432 픽셀까지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투명도 또한 조정 가능하다.

Text Edits 기능은 문장에 대한 교정 지시를 남길 수 있다. Note tool과 비교를 하자면 교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Text Edits 기능을 활용하면 Note

tool 보다 훨씬 다양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Note tool과 비슷하지만 다른 주석 도구는 Text Box Tool이다. Note tool과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는데 굳이 차이를 찾자면 'note'라는 표기와 자유 텍스트 도구를 남긴 시간이 남지 않는다는 점 정도이다. Pencil Tool을 사용하면 종이에 낙서를 하듯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선(Line)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Attach 기능도 눈 여겨 볼만하다. Attach 기능은 파일 첨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종 응용프로그램에서 제작된 텍스트, 음성, 이미지 정보를 PDF 문서의 필요한 곳 어느 위치라도 첨부할 수 있다.

교정 툴 중에 하나의 흠을 지적하자면 너무나 많은 도구가 지원되는 관계로 사용유무가 의심스러운 툴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각종 교정 도구를 통해 이뤄진 온라인 교정본은 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 해당 교정이 상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또한 종이 출력물에조차 교정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다.

● 여전히 문제로 남은 PDF 출력 일부 음성적으로 사용되었던, 혹은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PDF를 통한 출력은 데스크탑용 프린터에서 지원하는 아주 낮은 해상도 수준이었다. 하지만 한국어도비시스템즈는 Acrobat 6.0을 발표하면서 몇 가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2400dpi 수준의 출력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한가지 전제는 국내 매킨토시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면용 또는 비트맵 서체는 Acrobat 6.0 Distiller에서 요구하는 서체의 규격과 달라서 제대로 된 서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트루타입 또는 CID 방식의 서체는 Acrobat 6.0 Distiller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CID 폰트가 그리 많지 않고, 트루타입 폰트 또한 한양정보통신의 경우에만 공개되어 있으며, 다른 서체회사의 트루타입 서체는 폰트에 보호장치가 있어서 트루타입 폰트라 할지라도 PDF에서는 활용 불가능한 서체들이다.

디자이너에 따라 활용하는 서체가 다르기 때문에 Acrobat 6.0을 이용해서 PDF 출력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힘들다.

다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국어도비사에서 Acrobat 6.0을 통한 고해상도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쇄업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활용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폰트와 PDF에 관한 한 인쇄업체는 아직도 배가 고프 실정이다. <이용우 기자>

